

# Global Standard

제품안전기고문



※이미지출처: 국가통합인증마크(KC) 홈페이지

## 『KC마크』의 마케팅 활용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언



김홍광 부장  
(주)한샘

###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최근 친환경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에 따라 정부는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를 통해 가구 등 30개 공산품에 안전품질표시를 하도록 하고 오는 7월부터는 이 법안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안전품질을 표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Korea Certification)’ 표시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품질표시의 핵심은 유해물질의 방출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구의 안전기준은 실험방법상 테스트이터법에 의해 폼알데하이드 방출수치가 평

균 1.5mg/L 이하(E1등급)이거나 소형챔버법에 의해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수치를 일정 수치 이하로 제한하는 것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 ● ‘한샘’ 가구업계의 친환경 가구 사용을 위해 노력하다!

국내 가구인테리어 1위 업체인 (주)한샘(대표이사 최양하)은 2010년 1월부터 KC마크를 부착하고 안전품질 표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먼저 원자재뿐만 아니라 표면마감재, 접착제, 도료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법에서도 친환경 공법을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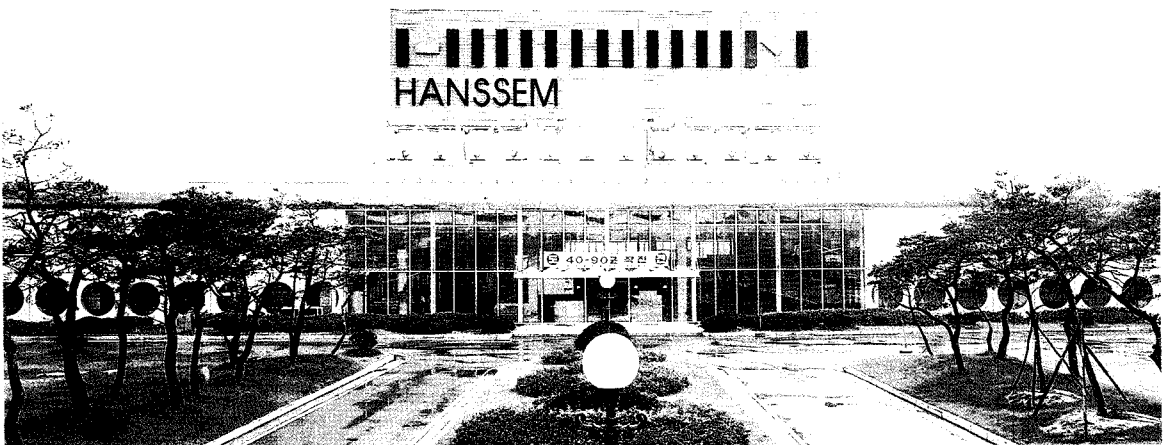
한샘은 가구의 원자재로 주로 쓰이는 파티클보드의 경우 이전까지 E1등급의 자재를 주로 사용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아동용 가구는 모두 E0등급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전제품을 E0등급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자재 수급으로 인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면마감재와 접착제, 그리고 도료는 2010년 상반기에는 클로버마크(HB) 양호 등급인 크로버 3개 등급을 사용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는 우수등급인 크로버 4등급 이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 공법에 있어서는 노출부위의 마감을 강화하고, 보링작업을 최소화하여 유해물질의 방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양생과정을 통해 친환경성을 높이고 있다.

질 가능성이 있어 구조력 강화를 위한 업그레йд된 하드웨어(철물)를 사용하고 가구의 크기를 제한하고 가공 위치를 최적화함은 물론 처짐을 방지하는 보강 하드웨어 사용과 생노출 부위의 마감을 통해 속자재에 잔존해 있는 유해물질 차단과 외부 온습도를 차단하는 spec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소재의 선택과 가공 기술개발 부분에서는 원자재, 접착제, 표면재, 도료 등의 선택시 친환경 자재로 검증된 것만 선택하고 전문 가공 기술과 설비를 완비하고 있으며, 도장 전 라미네이팅 마감으로 잔존 유해물질을 완전 차단하고 있다. 또 열압성형 기술과 설비를 보유해 유해물질을 가공 과정에서 많은부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에 잔존해 있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표면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최소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표면재로 마감처리하고 있다.

둘째 친환경 가구의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E0등급의 원자재는 강도와 내구성이 약해

넷째로 전용 실험장비를 구비 자체 시험은 물론 공인시험기관과 연계 수시로 검증하고, 주력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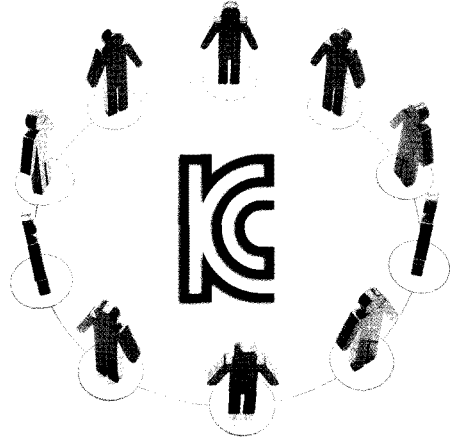
## 제품안전 기고문

에 대해서는 모두 환경마크를 취득하고 있다. 원자재 유해성 검증을 위해 데시케이터 실험장비를 구비해 로트마다 검증하고 있으며, 성형, 마감재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해 KOLAS 인증 시험기관인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와 용역계약을 통해 자재별 검증 및 친환경 자재 개발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또 친환경자재 및 공법 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본 운영제품은 2011년 상반기 내 모두 환경마크를 획득하고, 기타제품에 대해서도 환경마크 인증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한샘은 품질보증 프로세스를 완비해 신제품 및 신상품은 출시 이전 개발 단계부터 자재, 공법 등을 검증해 품질 및 친환경성 등 제품 전부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제품은 출시되지 못하는 프로세스를 갖추었다. 원자재도 입고자재에 대한 로트별 시험을 통해 검증된 자재만 투입하고 있다.

### ● KC마크 정착을 위한 제언

공산품 품질안전관리제도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부분의 브랜드 가구업체는 데시케이터법에 따라 E1등급 이상의 파티클보드를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E1등급 이상의 친환경 자재는 일반적으로 E2등급의 자재보다 약 2~30%가량 가격이 비싸다. 때문에 과거에는 폼알데하이드 방출수치가 높은 E2등급의 사용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규제 강화와 환경안전에 대한 인식 공유로 업체 자발적으로도 E1 이상의 자재 사용량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의 비브랜드 업체들은 단속



의 사각이라고 생각하고 등급외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7월 1일부로 이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면 이 또한 개선되리라 생각된다. 다소 아쉬운 것은 완제품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등급외 저급자재들이 근본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도록 법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부분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또 원자재 판매업체들이 표기한 환경 등급과 실제 확인한 결과치가 상이한 경우가 다수 발생해 친환경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C마크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아직도 KC마크에 대한 국민들 인지도가 높지 않아 대다수 중소기업체들이 마크 부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국내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끝으로 E0급 원자재의 경우 일부 사양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국내산의 경우 가공성 등에서 수입원자재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E0급 이상 자재 수요를 확대해 친환경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려면 “관세도 낮추어야”

기획재정부는 2009년 4월 동남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2012년 4월 24일 까지 3년간 기본관세 8%에 반덤핑 관세 7.67%를 추가로 적용해 총 15.67%의 관세율 부과를 결정해 시행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덤핑방지관세를 다시 연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구의 완제품인 수입가구는 WTO 양허관세로 인해 무관세인데 반해 원자재에는 관세가 부가되어 국내가구제조업체들에게는 역차별이 되고 있는데 반덤핑 관세까지 부과되어 수입가구와 비교해 관세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구업체들은 역관세구조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처럼 향후 3~5년내 이케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역차별 구조는 자칫 국내 가구산업 전체의 몰락까지 예상하게 한다.

보드제조업에는 6,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지만 가구산업은 9,100여 개의 제조사, 63,000여명의 종사자, 도소매 업체는 14,000여 개, 종사자수 36,000여명으로 15배의 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로 가구산업의 위기가 초래될 경우 그 경제적 여파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2007년 기준 가구류의 해외수출은 1.6억불이나 수입은 5.8억불로서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세 역차별이 꼭 개선되어야 한다.

브랜드사와 비브랜드사의 친환경자재 사용 차이로 인한 역차별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가구와 국내 가구제조사의 역차별로 인해 국내 가구 인테리어 산업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국내 가구산업 VS PB산업 현황 비교〉

구분	가구산업	PB산업
제조업체수	9,737 업체	3개 업체
종사자수	97,303명	6,000명
2007년 매출액	4~5조	1,404억원
2007년 수출규모	1.6억불	없음

※ 가구산업정보: 통계청, 국가포털, 2006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전국편

